

보도시점 2023. 5. 10.(수) 09:00 (2023. 5. 10.(수) 석간)

업종별 빈일자리 메꾸고, 취업애로 청년의 스타트업 기업 취업 적극 지원

- 조선업 희망공제 신청절차 신속 진행,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 점검·개선 등
-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 그간 1.4만명 매칭
- 스타트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고용부·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5차회의 개최

권기섭 고용부차관 주재로 5월 10일 열린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는 4월 고용동향과 함께 청년 고용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빈일자리 해소방안(3.8.)에 대한 현장활동결과를 논의하고, 직접일자리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①청년 고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추진한다. 아울러 고졸, 니트, 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②4월말 기준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근로자(E-9) 5.2만명(47.3%)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 또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구인난 업종에 현재까지 1.4만명을 매칭하고, 중점지원기업 4,5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선업 희망공제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관련 지원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농번기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현장점검을 토대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③직접일자리 사업은 4월말까지 약 96.6만명(잠정) 채용해 당초계획(93.6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목표인 99.4만명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권기섭 차관은 서울고용센터 「신속취업지원TF」에 방문하여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붙임)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책임자	과 장	김준호 (044-202-7962)
		담당자	서기관	이지은 (044-202-7214)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시동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김요균 (044-215-8531) 김범석 (044-215-8533)



- 제5차 일자리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❶ 4월 고용동향과 함께
 - ❷ 최근 청년층 고용상황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한편,
 - ❸ 지난 3월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대한
 - 각 부처의 현장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 ❹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합니다.
- 오늘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2.8%를 기록하는 한편,
 - 취업자수는 작년동월대비 35.4만명 증가했습니다.
-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4월 중 최고, 최저 수준이며,
 - 취업자수도 26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 최근 고용상황은 건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양호한 내수 흐름에 따라
 -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고,
 -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지속 확대된 것에 기인합니다
-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2.4)60.4 (8)49.4 (12)44.6 ('23.1)52.8 (2)38.0 (3)50.0 (4)46.9
-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전년동월비, %): ('22.4)1.2 (8)1.4 (12)1.3 ('23.1)1.1 (2)1.0 (3)1.4 (4)1.1
- * 60세+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전년동월비, %): ('22.4)0.9 (8)1.2 (12)1.2 ('23.1)0.6 (2)0.9 (3)1.9 (4)1.5
- 청년층 고용의 경우 고용률은 46%로 4월 기준('00년 이후)
 - 역대 2위를 보이고 있으나, 기저효과('22.4월 +18.6만명) 및 인구감소
 -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15-29세 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2.12)△21.1 ('23.1)△18.9 (2)△19.1 (3)△18.1 (4)△18.2

□ 이에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우선, 각 부처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효과를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겠습니다.

○ 또한 고졸, 니트, 지역 등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한편,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정부는 지난 3월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이후,

○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총 쿼터 11만명 중 5.2만명(47.3%, 4월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였고,

-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4.24)하여 5.15일부터 조선업쿼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현장의 구인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중점지원기업 4500여개’를 선정하여 채용대행 등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빈일자리 수(3월 기준)는 20.7만명으로, 전년대비 6천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 빈일자리 규모가 큰 제조업, 숙박음식점업의 빈일자리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주요 산업현장의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6대 업종의 부처별 책임관을 중심으로 추진한 현장활동 결과를 공유하여,

-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올해 목표치인 104.4만명 중 4월까지 96.6만명(잠정)의 채용을 완료하여 당초계획 대비 3만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신속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상반기 99.4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年 계획인원 95.2%)로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 논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로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